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5돐경축 로농적위군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 성대히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참석하시였다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5돐경축 로농적위군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가 9월 9일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9월의 경축광장에 천출명장들의 손길아래 강력한 전투대로, 인민군대의 믿음직한 익측부대로 자라난 로농적위군, 붉은청년군위대 열병총대들이 백두산총대를 역세계 틀어쥐고 발걸음높이 입장하였다.

광장과 잇닿은 대로는 전민무장화와 전국요새화가 빛나게 실현된 무적의 군사강국의 위용떨치며 로농적위군의 방사포병총대들이 정렬해있었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광장주석단에 나오시였다.

순간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과 함께 경축의 축포가 터져오르고 수천개의 고무풍선들이 광장상공에 날아올랐으며 《김정은》, 《결사옹위》, 《조국통일》의 함성이 하늘땅을 진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열병식참가자들과 군중들에게 손을 저어 답례하시며 공화국 창건 65돐을 맞는 그들을 축하하시였다.

백두의 천출명장을 높이 모신 우리 군대와 인민의 끝없는 영광과 긍지가 차넘치는 광장에 종합군악대와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군명에위병대의 레식이 펼쳐졌다.

애국가와 《조선로동당 만세》의 노래가 장중하게 주악되는 가운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와 조선로동당기가 게양되였다.

로농적위군 사령관이 인민무력부장에 열병부대들이 열병식준비검열을 받기 위하여 정렬하였음을 보고하였다.

인민무력부장과 로농적위군 사령관은 열병총대들을 사열하면서 공화국 창건 65돐을 맞는 지휘관, 전투원들을 축하하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인민무력부장이 공화국 창건 65돐경축 로농적위군 열병식을 시작하겠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가 주악되는 속에 21발의 레포가 발사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박봉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총리가 연설하였다.

《수령님과 장군님을 함께 계시네》의 노래가 장중하게 울리는 가운데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태양상을 모신 초상기가 조선로동당기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기, 로농적위군기들의 호위를 받으며 광장에 들어섰다.

전체 참가자들은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건설위업의 개척자, 령도자이시며 우리 공화국의 영원한 승리의 기치이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초상기를 우러러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열병행진이 시작되였다.

《김일성대원수 만만세》, 《절세의 애국가 김정일장군》, 《인민공화국선포의 노래》, 《한손에 총을 한손에 낫과 마치를》 등의 군악이 울리는 속에 평양시로농적위군총대를 선두로 평안남도, 자강도, 황해남북도, 강원도, 함경남북도, 량강도총대들이 보무당당히 나아갔다.

그 뒤를 이어 김책제철련합기업소, 희천련하기계종합공장, 황해제철련합기업소, 락원기계련합기업소,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룡성기계련합기업소, 2.8직동청년탄광,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김정숙평양방직공장총대가 씩씩하게 행진해갔다.

혁명의 무기, 계급의 총대를 틀어쥐고 반제군사전선의 제일선에 서있는 인민군대와 함께 조선로동당과 수령을 결사옹위하며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과 조국보위의 두 전선에서 자기의 성스러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고있는 로농적위군의 불패의 위력과 전투적기상이 열병대오마다에 내려졌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손길아래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마치고 나, 붓과 총대로 믿음직하게 담보해가는 인민방위무력의 위용을 과시하며 국토, 보건부문일군, 원화협동농장총대들이 행진해갔다.

주체48(1959)년 1월 14일 창건을 선포한 그날로부터 반세기이상의 장구한 기간 무적의 전투대로로 장성강화되어 사회주의건설과 조국수호, 반제반미대결전에서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여온 혁명적민간무력에 대한 끝없는 신뢰심을 안고 군중들은 열광적인 박수갈채를 보내였다.

백두산대국의 힘이시며 백전백승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는 열병대원들의 얼굴마다에는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는 천경만겁의 성세, 방패가 될 억척불변의 의지가 어려있었다.

열병대원들은 주석단앞을 지나며 위대한 대원수님의 주체적민간무력건설사상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가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숭고한 경례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열병대

오늘에 손을 들어 답례를 보내시였다.

또 한분의 백두산장군을 높이 모신 감격과 환희가 차넘치는 속에 조선로동당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어 승리만을 펼쳐갈 철의 의지인양 열병대원들이 터치는 《만세!》의 환호가 평양의 하늘가에 끝없이 메아리쳤다.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기계대학, 한덕수평양경공업대학, 김형직사범대학, 평양철도대학, 원산수산대학을 비롯한 각급 대학총대들 그리고 붉은청년군위대총대에도 과학탐구와 조국보위로 조선로동당의 위업을 굳건히 받들어갈 의지가 용솟음쳤다.

열병행진은 조선로동당의 자위적군사로서의 생활력과 인민방위무력의 위력을 과시하며 전진하는 방사포병총대들로 이어졌다.

세계지도에서 빛을 잃었던 공화국을 온 세상이 우러러보는 존엄높은 선군의 조국, 무적막강한 국력을 가진 자위의 군사강국으로 빛내여주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이 열병광장에 뜨겁게 굽어졌다.

수령결사옹위의 의지가 맥박치는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의 혁명군악을 힘차게 울리며 행진군악총대가 열병대오의 마감에서 씩씩하게 나아갔다.

열병식에 이어 평양시군중시위가 시작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동상을 모신 공화국기대렬이 광장에 들어서자 광장은 또다시 격정의 파도로 설레이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자애로운 영상이 빛나는 대형사진문헌들을 모시고 주체의 당기를 높이 들고 나아가는 대렬들을 보면서 관중들은 백두산천출위인들의 불멸의 건국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겨보았다.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이 차넘치는 광장으로 공화국기폭대렬, 태권도대렬, 군인가족대렬 그리고 예술인, 과학자, 체육인, 교원, 보건일군 등 여러 부문 시위대렬이 《승리와 영광의 65년》, 《주체》, 《진정한 인민의 나라》, 《경제강국건설》, 《과학기술중시》, 《금메달로 조국을 빛내이자!》, 《미래를 사랑하라!》, 《무상치로 무병장수》, 《조국통일》, 《자주평화친선》 등의 글발이 부각된 가발물, 구호판들과 함께 련이어 들어섰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태양기를 전투에 날리며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나아가는 공화국의 기상인양 군중시위참가자들은 열광의 환호를 울리며 주석단앞을 지나갔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김일애국주의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며 노도쳐나아가는 백두산대국의 미래는 찬란하다는 확신이 시위대오마다에 차넘쳤다.

위대한 조선로동당을 따라 강성국가건설에서 최후승리를 펼쳐갈 천만군민의 신념과 의지를 보여주며 광장바닥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영광》, 《경축 65》, 《백두산대국》, 《경제강국》, 《마식령속도》, 《일심단결》,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 《결사옹위》 등의 글발들과 공화국기, 조선로동당기가 련이어 펼쳐졌다.

종합군악대가 특색있는 대형변화로 승리와 영광의 상징인 원수별과 《사수》라는 글발을 새기며 군중시위의 마감을 장식하였다.

군중시위가 끝나자 또다시 우뢰와 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하늘땅을 진감하였으며 경축의 축포가 터져오르는 하늘가에 고무풍선들이 울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주석단로대에 나오시어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군중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뜨거운 애국충정을 안고 열병식 및 군중시위를 성과적으로 보장한 전체 참가자들과 평양시민들에게 당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축하와 감사를 보내시였다.

본사기자

9월의 경축광장에서 본 진리

공화국창건 65돐을 경축하는 뜻깊은 날에 평양의 김일성광장에서 로동적위군 열병식과 평양시민들의 군중시위가 성대히 거행되었다. 9월의 경축광장에서 사람들이 후더운 마음으로 다시금 느낀것은 주체성과 민족성이 강한 나라, 령도자와 인민이 혼연일체를 이룬 나라에서 사는 남다른 긍지와 자부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공화국은 국가건설과 국가활동에서 철두철미 주체성을 지키고 민족성을 구현해나가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다. 주체성은 자주위업실현의 근본 원칙이며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는 주체성의 구현이다. 자주적인 정치는 나라와 민족의 요구와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모든 로선과 정책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자체의 힘으로 해결한다. 남을 쳐다보거나 추종하지도 않으며 그 누가 압력을 가한다 해서 해야 할것을 하지 않거나 하지 말아야 할것을 하는 일이 없는것이 정치에서의 자주다.

민족의 주체성을 강화하는것은 곧 민족성을 강화하는것이고 주체성을 강화하는것이라는것이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견해와 관점이었고 주체성과 민족성을 지키는것이 못지않게 하는것이 혁명과 건설의 승패를 좌우하는 관건적문제이며 나라와 민족의 흥망을 결정하는 사회적문제라는것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주체성, 민족성 중시의 지론이었다.

공화국인민은 자주정치 의 거장인 절세의 위인들을 모시어 남의 의사나 압력, 간섭에 굴복하고 지휘봉에 추종하는 사대와 외세의존을 철저히 배격하면서 자주위업을 빛나게 개척해왔다.

자주적인 정치에 민족의 존엄과 권위가 있고 조국의 무궁번영과 민족의 밝은 앞날이 있다는것을 공화국의 65성상을 재현

한 경축광장에서 다시금 보게 된 것이다. 오늘날 선진국과 후진국, 강자와 약자를 가르는 기준의 하나는 경제와 과학기술발전수준이다. 주체성을 빛나게 구현한 공화국의 특정한 자립적민족경제와 자기 땅에 발붙인 과학기술은 자기의 힘과 기술, 자기의 자원으로 첨단을 돌파하고 21세기 과학기술강국, 지식경제강국건설을 힘있게 추동하고있다. 지난날 현대문명과 멀리 떨어져 간단한 농경기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던 후진국으로부터 자기의 힘과 기술, 자기의 자

원으로 철을 생산하고 비로도, 세)의 구호를 든 시위군중의 행렬에서 사람들은 선군의 기치아래 전국유세화, 전민무장화화기 빛나게 실현되어 그 어떤 외세공화국의 위력한 자립경제와 과학기술의 위력을 만천하에 떨치는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으로의 비약적인 도약은 주체의 한길만을 즐기차게 걸어온 자립경제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고 있다.

인민군대와 함께 마치고 나고 붓, 총대로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건설을 맡아하고있는 로동적위군의 위용을 과시하는 열병대오와 《위대한 선군정치 만

성을 견지하는것과 함께 민족이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한 근본조건, 근본원칙이다. 민족의 자주적운명을 개척하고 변명을 창조하는 과정은 민족의 우수한 전통과 문화가 전면적으로 계승발전되는 과정이며 민족의 존제와 발전을 위해 자기 민족의 고유하고 우수한 특성을 고수하고 적극 살려나가기려는 모든 민족성원들의 공동의 감정이다.

공화국의 력사는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민족성을 적극 구현하고 전면적으로 발전시켜온 력사다. 민족성을 고수하는것은 주체

시위를 통하여 사람들은 민족이 가지고있는 높은 창조적능력과 슬기가 구현되어있는 민족성은 나라와 민족의 발전과 변명을 이룩하는데서 더없이 고귀한 밑천으로 된다는것을 가슴후듬게 절감했던것이다.

은 겨레가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조국통일도 주체성과 민족성고수와 그 구현에 있다. 조국통일의 주체는 우리 민족이고 민족성은 조국통일의 기초이다. 오늘

의 6.15통일시제도 주체성과 민족성의 발현인 민족자주정신과 열렬한 민족애가 낳은 고귀한 결실이다. 경축광장에서 본 진리

《조국통일》이라는 글발을 든 시위대오의 장엄한 흐름을 보면서 사람들은 외세와 남조선의 반민족, 반통일세력이 아무리 민족의 지향과 시대의 흐름에 도전해도 우리 민족구리의 기치높이 조국통일을 기어이 성취하려는 민족의 통일애국의 발걸음을 가로막을수 없다는것을 가슴뜨겁게 느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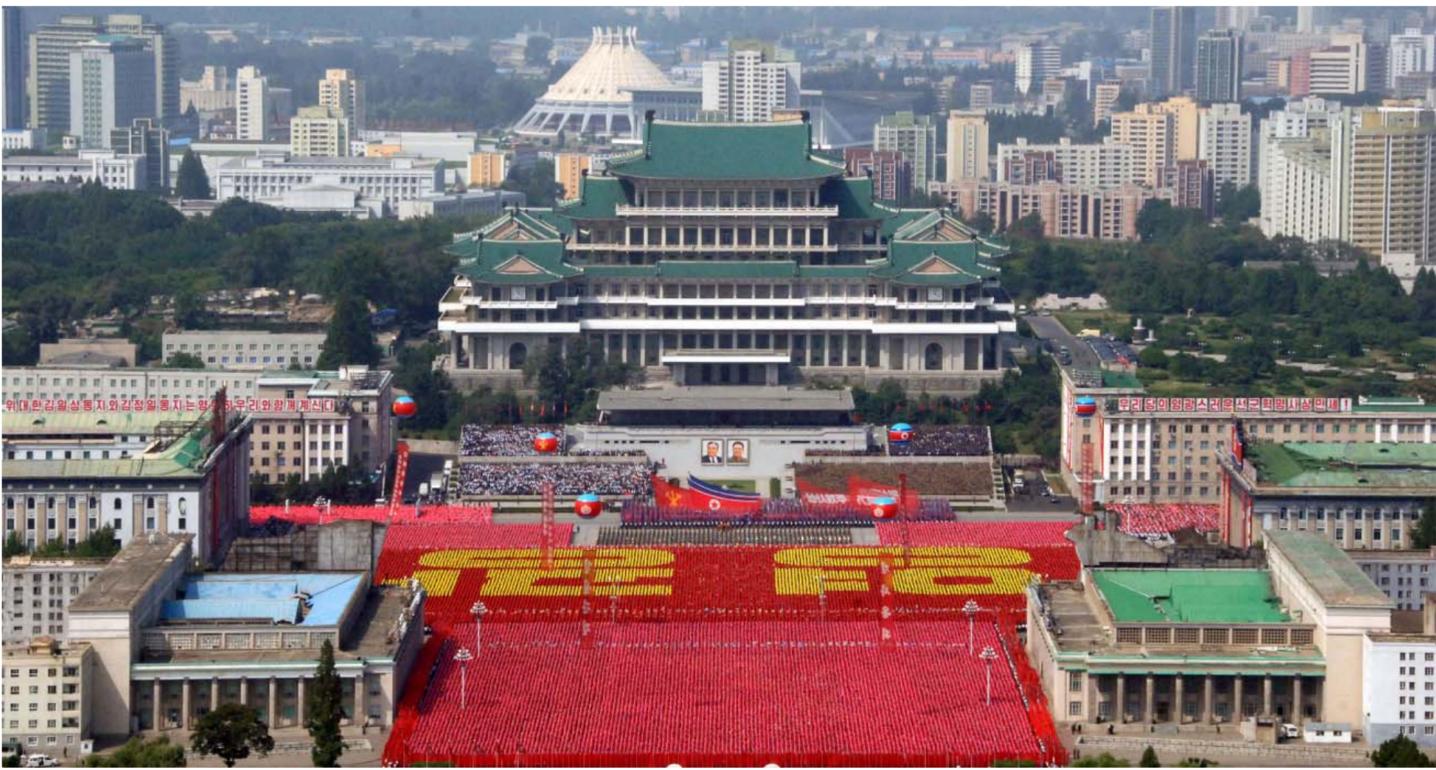
공화국의 65성상은 세기를 이어 령도자와 인민이 혼연일체의 위력으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고 구현해온 성스러운 력사이며 9월의 경축광장에서 선한 군중이 령도자를 우러러 목청껏 환호를 터치고 령도자는 인민들의 열광적인 환호에 담뉘를 보내시는 감동있는 모습은 지구상 유일무이하게 조선에서만 볼수 있는 혼연일체의 화폭이었다.

경축광장에서 조선의 령도자와 인민의 모습을 지켜본 로씨야 원동지역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회 협회 부위원장 겐나지 폴리코프는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친 조선의 힘을 당할자 이 세상에 없다고 했으며 외국의 한 인사가인 알레한드로 까오 테 베노스는 김정은령도자를 우러러 열광적인 환호를 올리는 군중시위참가자들의 마음마다에 자기 령도자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아들여나가기려는 신념과 의지가 차 넘치고있었다. 령도자와 인민이 혼연일체를 이룬 조선의 참모습이었다고 감동을 토로했다.

존엄은 국호와 국장, 국기를 뒀으며 성대히 치르어진 9월의 경축행사는 국가건설과 활동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철저히 고수하고 구현하는데 민족의 자주적발전과 통성변명이 있으며 령도자와 인민의 혼연일체의 힘은 불패라는것을 더욱 힘있게 과시했다.

애국위업실현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은 생명이며 혼연일체는 천하지대본이라는것이 9월의 경축광장에서 사람들이 다시금 진리로 새긴것이다.

본사기자 리 설



27坪의 작은 배와 함께 그 이름이 널리 알려진 장재도와 무도가 오늘날 자기의 옛 모습을 찾아볼수 없게 훌륭히 변모되었다.

섬방어대마을의 멋진 선경은 멀리 있는 자식일수록 언제나 마음속 가장 가까운 자리에 두시고 사랑을 주고 정을 쏟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뜨거운 사랑이 낳은것이다.

얼마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또다시 그곳을 찾으시었다. 감격속에 만세를 부르며 달려와 안기는 군인들과 군인가족들 따듯이 인사를 나누시고 새로 꾸러진 병영과 마을들을 일일이 돌아보신 그이께서는 섬에서 생활하는 군인가족들을 남보다 더 잘살게 하시려고 마음

천도개벽

쓰시던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소원을 또 하나 풀어드리게 되었다고 하시었다. 현대적으로 꾸러진 병설과 교양실들, 불과 몇명밖에 안되는 아이들을 위해 세워진 분교와 유치원들을 돌아보시고 그이께서는 아주 만족해 하시며 선군시대의 새로운 섬초소, 섬마을선경이 생겨났다고, 장재도에서 천도개벽이 일어났다고 말씀하시었다. 천도개벽! 풍광사나운 날마다가운데 있는 외진 섬마을 군인들과 인민들까지도 언제나 마음속깊은 곳에 안고 사

하시면서 물에서 나올 때까지 떠나지 않았더니 다시 배에서 내리시었다. 그이께서는 마지막 한 사람까지 물에서 나온 후에야 다시 배에 오르시었다. 섬의 군인들과 인민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 까지 오래도록 손을 저어 주시는 원수님의 모습에는 그 어떤 천지풍파가 물아쳐와도 이 나라의 천만군인들 사랑을 풀어주시려는 확고한 의지와 결심이 어려있었다.

결에 있는 자식보다 멀리 떨어져있는 자식을 더 생각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친부모의 심정으로 외진 섬초소의 군인들과 군인가족들을 잊지 않으시고 더 큰 사랑을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이다.

군인들, 인민들의 행복과 기쁨을 자신의 유일한 락으로 여기시는 친근한 아버지를 모시어 공화국에서는 날에 날마다 수많은 천도개벽, 천지개벽이 이룩되고있으며 인민의 지상락원, 무릉도원이 펼쳐지고있다. 본사기자 리 경월



무도의 군인가족들 새 집들에 입사

이번에 평양에 와서 공화국창건 65돐경축 로동적위군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를 보고 격동을 금할수 없었다.

정규군도 아닌 민간부력의 열병식이라고 하면 너무나 훌륭하고도 완벽했기때문이다. 아마도 민간부력을 가진 나라는 눈을 비비고 지구촌 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공화국이 유일할것이다. 김일성주석께서 내놓으신 전민무장화방침의 생활력이 페부로 와닿는 순간이었다. 발걸음도 높이 보무당당히 행진해가는 열병중대들의 적석한 모습과 목청껏 만세를 부르며 지나가는 평양시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공화국의 힘에 대해서, 밝은 미래에 대해서 다시금 느끼

게 되었다. 빈말을 모르며 한다면 하시는 이들의 무궁무진한 정신력은 과연 어디서 나오는것인가?

조선에 한두번이라도 와본 사람들, 아니 적어도 공화국을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 물음에 쉽게 대답할수 있을것이다. 그 힘은 바로 자기 령도자에 대한 깨끗한 총정과 도덕의리에서 나오는것이다. 그것이 있어 세상유일무이의 혼연일체가 북에 있고 바로 그 힘이 있어 공화국이 65년간의 기나긴 로정을 웃으며 헤쳐올수 있지 않았던가. 누구나 부러워하는 공화

공화국은 선군으로 존엄은 나라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건드리는 그 어떤 침략자도 용서치 않는 정의의 총대, 예국의 총대를 높이 드시고 선군위업실현에 헌생을 바치시었다.

그이께서는 생전에 자신께서는 인민을 깔보고 우롱하는자들과는 타협하지 않았다고, 우리에게는 조선민족과 조선의 강토에 대한 그 어떤 형태의 침노도 용납하지 않는 우리의 법이 있었다고 하시었다. 백두산의 아들로 탄생하시어 존엄한 반제반미대전의 불길속에서 령장으로서의 품모와 자질을 완벽하게 체현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안으시고 어머니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현명하게 령도하여오신 선군의 길을 이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50여년전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방크사단에 현지지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것

주체조선의 국력과 존엄을 힘차게 과시

로동적위군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를 본 외국인들의 반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5돐경축 로동적위군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를 본 외국인들은 흥분을 억제하지 못하며 격동된 심정을 토로하였다. 몽골 자주적발전을 위한 백두산협회 지도리사회 성원 느. 사란토야는 공화국창건절을 뜻깊게 경축하고있는 조선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낸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5돐을 경축하여 진행된 로동적위군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를 보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열병식을 보면서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전투적기백과 역센 기상이 나래치는 열병대오를 보니 힘과 용기가 솟구칩니다. 오늘 경축행사는 조선의 무적막강한 국력을 잘 보여 주었다. 김정은각하의 현명한 령도 밑에 조선인민이 가까운 앞

날에 강성국가를 일떠세우리라고 확신한다. 방글라데슈주체사상연구소 사장 장 세이 라피를 이슬람 바부라는 이렇게 강조하였다. 열병식과 군중시위를 깊은 감동속에 보았다. 지축을 울리며 열병대오들이 보무당당히 행진해나아갔다. 열병대원들의 얼굴마다에 희세의 천출명장을 높이 모시고 조국을 굳건히 수호하고있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이 어려있었다.

조선의 인민방위부력은 침략자들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릴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열병식은 무적의 전투대오로 자라나 주체의 사회주의 위업수행을 믿음직하게 담보해가는 로동적위군의 불패의 위용을 생동하게 보여 주었다. 그 어떤 대적도 일심단결의 힘과 강한 국력을 가진 조선

인민을 굴복시킬수 없다. 방글라데슈인민은 언제나 조선인민과 함께 있을 것이다. 로씨야 원동지역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회 부위원장 겐나지 폴리코프는 열병식이 정말 대단하다고 하면서 자기 심정을 이렇게 터놓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65성상 겹쌓이는 시련과 난관을 이겨내며 승리의 한길을 걸어왔다.

조선이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될수 있는것은 결출한 수령들을 모시였기때문이다. 오늘 행사를 통하여 사회주의조선의 위력에 대해 잘 알수 있었다. 조선의 일심단결은 그 어떤 현대적인 무장장비보다 더 큰 위력을 발휘하고있다.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친 조선의 힘을 당할자 이 세상에 없다. 성대하게 진행된 열병식과

군중시위가 이를 다시금 확증하였다. 조선과의 친선협회 위원장 알레한드로 까오 테 베노스는 조선인민은 참으로 단결력이 강한 위대한 인민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정은동지를 우러러 열광적인 환호를 올리며 군중시위참가자들이 주석단앞을 지나갔다. 그들의 가슴마다에 천출명인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아들여나가기려는 신념과 의지가 차 넘치고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뵈은 영광을 무슨 말로 표현하였으면 좋을지 모르겠다. 령도자와 인민이 혼연일체를 이룬 모습은 조선에서만 볼수 있다. 열병식과 군중시위를 통하여 주체조선의 국력과 존엄이 힘차게 과시되었다. 조선의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라고 확신한다. 본사기자

계승과 출발

은 선군위업의 빛나는 계승과 선군령도의 장엄한 세출발을 선언한 력사적사건이었다. 장군님의 선군령도의 새 출발이 있어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선군위업이 빛나게 계승될수 있었고 력사가 처음으로 알게 된 독창적인 선군정치가 탄생할수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공화국에 최악의 시련이 닥쳐왔던 시기에 천리혜안의 예지와 비범한 통찰력으로 선군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정립하시고 전면적으로 구현하시었다. 지난세기 90년대에 공화국이 제국주의자들의 끈질긴 봉쇄와 거듭되는 자연재해로 인한 최악의 역경속에서도 끄떡없이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당당히 지켜내고 강성국가건설의 포성을 울릴수 있었던것은 장군님의 선군정치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반공화국적대세력과 그 추종세력들이 공화국의 운명에 대해 그 무슨 《시간문제》를

운운하며 패배를 부르고있을 때 위대한 장군님께서선군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드시고 조국수호의 전진길에 나서시었다.

있을수 없는 그 나날 장군님께서서는 우리가 나라의 통제형인 어렵다는것을 물려서 인민군대를 찾아가는것이 아니다, 지금은 그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나라를 지켜야 할 때이다, 조국을 지켜내기만 하면 생활을 푸는것은 문제가 아니라, 망국노가 되겠는가, 자주적인민이 되겠는가, 오늘 문제는 바로 이렇게 선다고 하시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세찬 전진길에 나서시었다. 그 길에는 우리가 언제 손뎌고 뜻을 달고 단년적인것과 함께 헤쳐가신 초도대로의 항해길도 있었고 적들의 총구가 도사리고있는 곳으로 서슴없이 나서시었던 판문점의 안개길도 있었다. 그이께서는 이렇게 낮과 밤을 이어가시며 힘겨운

전진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었고 야전차를 밀며 위험천만한 오성산의 칼바람길에도 오르신것이었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일군들에게 자신께서는 선군정치를 하고 선군의 상징인 오성산이 있어 나라를 지켜냈다고, 오성산이란 말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감고있었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가 잊혀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선군정치를 계속해나가는 한 우리 인민은 자주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떨치며 남부럽지 않게 잘살게 될것이라고 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위업의 빛나는 계승과 선군령도의 새 출발이 있어 총대로 개척되고 전진하여온 공화국의 고귀한 력사와 전승을 즐기차게 이어질수 있었으며 조선은 위대한 선군사상의 조국, 선군정치의 조국으로 그 이름 빛나게 되었다. 하기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선군

이라는 새로운 시대어자체가 장기간에 걸친 제국주의 령강과의 첨예한 대결상에서 나라와 인민의 운명과 미래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모든것을 우리 인민, 우리 민족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우리 식으로 풀어나가신 김정일동지의 역적불변의 신념과 의지, 담대한 배짱에 의해 생겨났것이라고 하신것이다.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환경생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이 땅위에 수령님의 뜻고인 넘넘인 강성국가들 하루빨리 일떠세우시려 불철주야 헌신과 로고를 바쳐 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천만리를 잊지 않을것이며 그이께서 나라와 민족앞에, 시대와 력사앞에 쌓으신 불멸의 공적을 찬연만연 길이 빛내여갈것이다. 위대한 선군정치가 있고 그에대한 김정은원수님께서 공화국을 진두에서 이끄시기에 공화국의 미래는 밝고 창창하며 이 땅위에 반드시 통일되고 부강번영하는 강성국가가 일떠세워 될것이다. 윤형주

신 비 한 나 라 조 선

지난 7월 평양을 방문한 미국의 평화활동가 브라이언 베커 반전반인종차별행동 사무총장은 《조선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속담이 딱 맞는 나라》라고 인터뷰에서 밝혔다. 서방의 리기적인 선전에 익숙된 사람들도 같은 환경에서라면 누구나 동일한 느낌을 갖는다. 나머지 같은 민족이지만 이방인

의 시각을 가지고있었다. 물리해는 조선의 현실에 대한 부정확한 인식에 기인된것임을 나는 근래에 여러차례 공화국을 방문하면서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한성 속명으로 알고 사는 고통과 혐오와 상반되는 현실에 대해 말하려고 한다. 그것은 세계에 있는 조선에만 없는것이다.

집 값을 모르는 사람들

평양비행장을 떠나 시내로 들어오며 생각한것은 먼저 주민들이 사는 집을 방문하는것이였다. 집값은 얼마이며 호화주택의 주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며 내가 찾은 집은 평양에 새로 일떠선 창건거리살림집이였다.

힘을줄 모르고 다섯집이나 돌아보았다. 그렇게 훌륭한 집을 거쳐 가겠다고 하기때문이었다. 꼬끼리가 하늘을 난다는것만큼이나 놀라운 일이었다. 집을 공개로 주는 나라는 세상에 없다. 더 큰 의혹은 평범한 근로자들이 집주인이라는것이였다.

감탄을 연발하며 쉽게 자리를 뜨지 못하는데 유엔리포트에서 다닌다는 안주인이 내 마음을 넘본듯 대체 외국에서는 집값이 얼마나 되느냐고 묻는 것이였다.

대답이 나가지 않았다. 이런 천천한 아줌마에게 170㎡의 집을 사자면 일반

근로자가 100년동안 한푼도 쓰지 않고 저축해야 살수 있다는것을 어떻게 말해준단 말인가. 신사연하는 나 자신도 아직 제집이 없다고 차마 입을 뻔수 없었다. 수십년간의 세방살이고행이 북받쳐서였다.

그들과 내가 비교되는 순간이였다. 태어나서부터 국가적시책을 받으며 사는 사람들과 돈의 멍에를 지고 사는 사람들의 운명은 같지 않았다. 공화국주민들은 참말로 국가덕에 아무 걱정없이 호사하고있었다.

그들은 맨하탄의 마천루가 있는 곳에 20%의 사람들이 집을 가지지 못하고있다는것과 이남의 주민세대 45%가 집때문에 생존의 위협을 당하고있다는것을 모를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다. 이것이 혹 서방이 집값을 모르고 사는 북의 실상을 그토록 오도하고싶어진 까닭이 아닐까싶다.

담당의사를 두다

요관심사였다.

나는 언젠가 주조 세계보건기구 대표 에이길 쏘렌센에게서 《보건제도, 보건체계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만큼 제인 나라는 없다. 정말 나무랄데 없다.》라는 말을 들은적이 있다. 리상사회를 보여거든 조선에 가보라고 한 미국의 빌 그라함복사의 고집이 떠올려지는 순간이였다. 조선의 보건제도에 대한 그리스도교신자로서의 적중한 표현은 내가 동경하는 에덴동산 자체였다.

돈의 액수에 따라 의료봉사등급이 규정되고 1%에게 바치는 씨비스를 굳이 문명사회의 징표로 여긴다면 이것은 모순중의 모순이다. 종합집진에 400US\$, 하루원빈비가 평균 300US\$인데다 명장수술비 5 000US\$, 자궁암수술비 3만US\$, 뇌수술비 15만US\$에 달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돈이 없으면 죽음을 택해야 한다.

따라서 서방이 《인권문제》를 놓고 공화국에 대한 책임을 늘어놓고있는것은 지구상에서 치료비없이 생명을 담보해주는 진정한 인권보호국을 말살하기 위한 유치한 행위로 보는것이 틀리지 않을것이다.

자녀들을 12년간 나라에 맡긴 학부모들

특종뉴스가 범람하는 인터넷상에서 지난해 공화국에서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회의소식은 사변적의미를 가진것이였다. 세인의 비상한 관심은 법령에 명기된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은 무료로 실시한다.》에 모아졌다.

세계가 열광하였다. 의문도 많았다. 그 엄청난 교육비를 국가가 어떻게 감당하는가?

하지만 공화국은 1959년부터 전반적 무료교육제를 실시한 때로부터 오늘까지 변함없이 무료로 자녀들을 공부시키고있다. 12년제의무교육을 거쳐 대학, 박사원에는 이르는 전기간 그리고 사회교양기관에서도 누구나 무료로 교육받는다. 박사원까지의 기간이 20년이 넘으니 국가는 그 오랜 기간 교육비를 부담하는것으로 된다. 상상할수 없는 일이다.

더 기적이랄수 있는것은 공화국에 어려운 시기가 있었지만 이 시책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것이다. 1990년

대 중엽에는 《북붕괴설》이 돌았었다. 제국주의련합세력이 기회를 노리고 북의 송풍을 조이려 했지만 수백만자녀들의 운명을 지켜주는 공화국은 허리머를 조이면서도 온 나라 학부모들에게 《나라가 어려우니 교육비를 고려해보자》는 식의 말을 하지 않았다. 공화국 학생들의 주체곡인 《장군님은 전선으로 아이들은 야영소로》라는 노래에 그 모든 고난을 헤치시며 후대들을 위해 헌신하신 자기 령도자에 대한 감사의 정이 넘쳐 흐르고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그 누구에게 감사할 필요가 없다. 지불능력이 따라 자의대로 대학을 선택할수 있고 그 능력이 없으면 포기하면 되는것이다. 그래서 서방에는 문맹자들이 많다. 12년간 자녀들을 완전히 국가에 맡긴 북의 학부모들이 부럽다.

남조선신문 《한겨레》에 실린 자료를 보면 나의 고통이 어떤것이였는지 충분히 이해할것이다.

《얼마전 보건사회연구원원 자녀 1명

재미동포 리경실

을 낳아 대학을 졸업시킬 때까지 드는 양육비용이 약 23만 6 400US\$가 넘는 것으로 발표했다. 《민중등록금의 나라》라는 말이 나올만도 하다.》

이렇게 천정부지로 치솟는 등록금때문에 해마다 대학생의 27%가 휴학하고

세금을 알 필요 없다

공화국은 세금이라는 항목이 없다. 즉 세금이 없는 나라이다. 이것도 과연 리해할수 있는가?

원래 국가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개인 또는 집단소득의 일부를 무상으로 헌납시키는 특징을 가진 이 조세제도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수탈의 수단으로 되고있다.

조선은 이미 1966년에 농업원물세를 폐지하도록 하고 1974년에는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앨데 대하여》에 관한 법령을 채택하였다.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는 조세의 부담에서 벗어나려는 인민의 세기적원인을 이렇게 실현해주었고 공화국은 지구상에서 세금 없는 첫 나라로 되었다.

나역시 세금을 시달려온 사람으로서 남조선에서 살 때 32개와 7개의 항목으로 된 조세와 준조세를 다 외우지 못

해해 500여명 학생들이 자살하는 참극이 빚어지고있다.

등록금이 없는 사회에서 공부시키고 싶은 생각은 돈의 유무에 관계없이 세계 모든 학부모들의 공통된 념원이 아닐까.

했다. 세금 아닌 세금인 준조세의 부담금(환경개선, 교통시설)은 99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집에서도 세금, 거리에 나서는 순간부터 세금이였다. 오죽하면 《세금폭탄》이라 했겠는가.

지난 5년간 이남의 세금은 최고 86%까지 늘어났다. 하여 주민세대들의 빚은 9 000만US\$로서 이것은 매세대당 5만US\$의 빚을 지고있는셈이다. 《자살왕국》이라는 오명이 붙고 34분마다 1명씩 자살의 길을 택하는것은 사실 불가피한것이다.

처음으로 공화국을 방문하였을 때 세금문제로 남긴 인상을 지울수 없다. 그때 안내원은 세금이 없다는 말을 듣고 도 계속 캐묻는 나를 《꿈지 않는》 눈으로 보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오르면 세금이 없다는것쯤은 알고있어야 한다.

부패가 없는데서 마약을 찾지 말라

언젠가 한 출판물에서 조선을 마약과련관시킨 자료를 보게 되었다. 유치한 일이 아닐수 없다. 왜냐면 공화국의 영상을 흐려놓기 위한 모략이기에 때문이였다. 다른 나라에는 라당할지 몰라도 조선에는 어불성설이다.

나도 혹시나 하여 방문기간 마약관련 문제를 놓치지 않았다. 언제 어떻게 확인해볼지 고민하던 순간에 머리를 치는것이 있었다. 청년들이 많은 곳! 그곳이었다. 실종을 감추고 요청했더니 안내원이 어느 한 건설장르로 이르는 것이였다. 그때는 늦은 저녁이였다.

마치 영화촬영을 목적으로 한듯 사람들이 붐비였다. 방충차에서 울리는 담판 목소리와 기증기의 동음, 건설자들의 노래소리, 각이한 음향들이 조화된 이런 현장을 나는 처음 경험하였다. 마술에 걸린듯 온몸이 거뜨해졌다. 가끔 베토벤의 교향곡인 《환희》로 번거로운 마음을 달래왔건만 이렇게 신선해진것은 없었다. 저도모르게 몰랐어가는 곳으로 다가갔다.

그들은 건설장에 지원을 나온 대학생

들, 근로청년들 등 각계층 젊은이들이였다. 약동하는 환경은 나를 취하게 했다. 잠깐이라도 땀흘리고 집에 가야 밤맛이 난다고 말하는 그들을 보며 나는 다른 세계의 마약중독자들을 생각했다.

그들도 10대, 20대 청년들이였다. 남조선은 10여년전까지만도 마약사용자가 100여만, 복용자는 2만여명이였다. 회망이 좌절되고 대학진학의 길이 막힌 학생들, 경제생활의 빈궁화로 젊은이들이 부패해지는것을 어찌 막을수 있었는가.

나는 이번 방문기간 평양 《교향곡》에 심취되었던 그때 그 자리인 오늘의 룡라민민원지에서 당과 국가가 인민에게 베푼 지성에 취하였다. 건설장의 골재 한산, 조국번영의 한순간을 소중히 여기던 그 청년들의 소행이 웅당한데 어찌 겨겨졌다. 옳다. 그들은 나라의 것줄기에서 자란 생명들이였다. 색깔은 보답의 마음은 마약으로도 저지시킬수 없는것이다.

세상에 마약을 이기는것이 있다면 그것은 깨끗한 정신이다.

취직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없다

지난 5월 8일부 《요미우리신보》은 《취직에 실패하여 자살하는 청년들 급증》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보도하였다.

《취직에 실패하여 고민하다가 자살하는 10—20대의 청년들이 급증하고있다. 경찰청에 의하면 작년에는 대학생들 150명이 취직에 실패하여 고민하다가 자살하였는데 그 수는 2007년의 2.5배로 늘어났다.》

남조선이 공식 발표한 자료에도 실업자가 460여만명이며 교문을 나서자마자 실업자가 된 청년들은 200만명이라고 지적되어있다. 하여 대학졸업중서는 《실업증서》로 통용된다고 한다. 이러한 자료는 인터넷에서 얼마든지 볼수 있다.

어느 나라나 실업자가 있는것을 당연한것으로 여기던 나는 조선을 방문하는 과정에 새로운작년을 알게 되었다. 공화국에 실업자가 없는것이였다. 국제전선전람관을 참관하는 날에 그것을

존엄을 파는 여성들이 없다

세계에 매춘이 범람하고있다는것을

들, 근로청년들 등 각계층 젊은이들이였다. 약동하는 환경은 나를 취하게 했다. 잠깐이라도 땀흘리고 집에 가야 밤맛이 난다고 말하는 그들을 보며 나는 다른 세계의 마약중독자들을 생각했다.

그들도 10대, 20대 청년들이였다. 남조선은 10여년전까지만도 마약사용자가 100여만, 복용자는 2만여명이였다. 회망이 좌절되고 대학진학의 길이 막힌 학생들, 경제생활의 빈궁화로 젊은이들이 부패해지는것을 어찌 막을수 있었는가.

나는 이번 방문기간 평양 《교향곡》에 심취되었던 그때 그 자리인 오늘의 룡라민민원지에서 당과 국가가 인민에게 베푼 지성에 취하였다. 건설장의 골재 한산, 조국번영의 한순간을 소중히 여기던 그 청년들의 소행이 웅당한데 어찌 겨겨졌다. 옳다. 그들은 나라의 것줄기에서 자란 생명들이였다. 색깔은 보답의 마음은 마약으로도 저지시킬수 없는것이다.

세상에 마약을 이기는것이 있다면 그것은 깨끗한 정신이다.

취직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없다

알았다. 방문자들중에는 100여명의 원산농업종합대학 학생들도 있었다. 나는 그들이 졸업반이라는 말에 더 호기심이 커졌다. 과연 이들은 어떻게 취직할까?

대 물음에 한 처녀대학생이 모두 농장에 진출한다고 자랑스럽게 대답하는것이였다. 강원도내 각 농장들이 자기들을 기다린다는것이였다. 그들의 첫 직업은 농산기사였다. 으시떨만도 했다.

그들은 자기가 선택한 직업에 대단히 만족해하였다. 희망하면 곧 실현되는 사회라는것이 대변에 알렸다. 운이 좋게도 고민과 타락의 길이 이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 이런것을 두고 진짜자유가 있다고 말할수 있을것이다.

국가가 고급중학교와 대학졸업생들을 적체적소에 배치해주고있고 또한 리기적선택이 아닌 도덕적선택이 사회풍조를 이루고있으니 취직에 실패하는 사람이 없는것은 자명한 리치이다.

존엄을 파는 여성들이 없다

세계에 매춘이 범람하고있다는것을

국내외에서 젊은 여성들이 룡쌀롱이나 단란주점 등에서 몸을 팔며 살아가는 수가 100만명이나 된다고 한다. 어떤 녀대생들은 방학때마다 일본이나 오스트랄리아, 미국 등지에 나가 룡락가를 헤매며 등록금을 마련하고있다.

존엄과 청춘이 짓밟히체 몇푼의 지폐를 위해 남의 노리가 되는 일을 당연하게 여기는 인간들이 사는 곳이 문명과 《북지》를 외우는 자본주의실체이다. 이것이 그들의 《인권》이고 《자유》인것이다.

그러니 돈 아배 사람이 있는 세상에서 삶의 뒤끝에 물린 여성들이 돈을 위해 사창가에 몸을 내대는것은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들의 불우한 운명을 격정해주며 매춘이 없는 사회를 그려온 나는 우연히 공화국에서 그 답을 찾게 되었다.

참관로정을 마치고 호렐로 가는 길에 불빛이 명멸하는 건물들 지나게 되었다. 나는 무작정 차를 세웠고 안내원을 따라 그곳에 들어갔다. 건물은 뜻밖에 청년들의 파괴교양기지 청년중앙회관

《절망범죄》를 모르는 사람들

얼마전 남조선에서 열린 《잇달은 절망범죄》에 대한 집권과 대책수립을 위한 긴급토론회》에서는 병든 사회가 바로 급증하는 강력범죄의 원인이라고 지적하였고 이것을 《절망범죄》로 지적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안전망의 부재가 생존을 위협하며 극심한 량국화가 개인의 존엄과 자존을 박탈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들이 제시한 최선의 예방책은 그들이 살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것이였다.

옳다. 범죄의 모든 원인은 개인만을 위한 사회제도, 돈중심의 가치관에서 비롯된다. 자본주의사회에 만연된 끔찍한 참변들은 복수심리가 증척되고 축적되면서 더 큰 사회악으로 번져가고있다. 따라서 강도와 폭력은 불가항력적이다.

ampus가 《한 시대의 지배적인 사상은 지배층의 사상이였다.》고 강조했듯 《절망범죄》가 성행하는 제도는 명백히 사람들이 공감하지 않는 이데올로기를 가졌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불안요소를 키워오면서도 아무런 안전망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제

분노할 일이 없다

지구촌 곳곳에서 반정부시위가 벌어지는것도 예사로운 일이다. 미국에서 인종문제를 놓고 흑인들의 시위가 격렬해지고있는 때 남조선에서는 대규모 모초불시위가 벌어지고있다. 1만명, 3만명, 10만명... 《정부》가 보도판제를 취하고있지만 국민의 격노한 목소리는 전파되고있다. 그들은 자유를 말하는것이 아니라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권력을 가진 어떤 나라들에서는 공화국에 이러한 《자유》가 없는것처럼 서문화하고있는데 사실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협맹》 제5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 그리고 언론, 출판, 집회, 시위, 결사, 신앙의 자유 등을 가진다고 명기되어있다. 그러나 나라를 받들고 사회를 위해 헌신하자는 목소리는 크게 울려도 서방에서 일상사로 되고있는 사회제도에 대한 울분과 저주의 목소리는 들려오지 않는다. 즉 분노할 조건이 없기 때문이다.

등록금? 치료비? 집값? 세금?... 우에서 서술했듯이 공화국에는 세계 어디나 공통적으로 존재하고있는 어두운 그들이 없고 태양의 빛받과도 같은 인민적시책만이 차고넘친다. 주민들은 모든것들이 부족한 속에서 둘러지는 은혜에서 공화국의 시책을 더 소

이었다. 컴퓨터, 약전, 자동차, 손풍금, 미술 등 24개의 각종 소조실들에서 방과후를 보내는 대학생들, 하루일을 마친 근로청년들이 필요한 재능을 배우고있었다. 청년들의 궁전이라 해도 무리가 아니었다.

나는 먼저 컴퓨터소조실에 들렀다. 녀성들이 많은것이 인상적이였다. 의아해하는 나에게 지도교원은 김정숙평양방직공장 염색직장 처녀들이 자체의 힘으로 프로그램을 완성하느라 저렇게 애쓰다고 말하는것이였다. ?!

사창가녀인들이 떠올랐다. 그녀들이 이 광경을 본다면 뭐라고 할까. 나라의 꽃으로 떠받들리우며 사회에 당당히 한문하는 이 평범한 방직공들의 모습을 본다면 무엇을 생각할까.

아마도 인간의 자유와 인권이 가장 철저히 소멸되어가는 사회가 바로 자본주의사회임을 자인하게 될것이다. 그리고 이 신비한 나라—리상사회를 모욕하는 매권주의자들의 기만행위를 증오하게 될것이다.

《절망범죄》를 모르는 사람들

도에서 살인, 강간, 폭행과 같은 강력범죄가 끊기지 않는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 아닐까.

《절망범죄》가 생겨나지 않는 곳은 공화국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왜냐면 인간의 본성에 맞게 살아갈수 있는 모든 사회적조건을 보장해주고있는 나라 즉 근로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이 되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향유할수 있는 제도이기때문이다. 남을 위한 배려와 집단을 위한 활동이 아름다운 삶으로 조영되고 자기를 바치는 것을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하는 가치관은 조선의 특유한 정신적자산이다.

지금 서방의 언론들과 반복적대식에 감염된 학자들, 정치인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제창하며 공화국을 헐뜯는 꾀만을 쏟아내고있지만 전세계 정의를 사랑하고 각종 범죄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조선을 주목하고있다.

누구나 마음껏 배우고 일하며 태어나서부터 사회의 배려속에 인간의 존엄을 지켜주는 공화국, 여기에서는 세계의 악재인 범죄가 자랄수 없다는것을 알고있기때문이다.

존이 여기고있으며 자기들의 삶의 요람을 가꾸어주는 조국을 어머니라 호칭하고있다.

그 조국은 창건 첫시기부터 자기의 성격을 인민정권으로 정하였고 모든 시책들을 인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세우고 실현하였으며 전체 인민이 서로 도우면서 화목하게 사는 하나의 대가정, 일심단결을 이루어놓았다. 자식들에 대한 사랑이 가득한 어머니를 절대적으로 따르는것은 인간의 본능일뿐더러 도의이기도 하다. 공화국인민들이 어머니조국에 열광하는 리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반정부시위의 원인을 명쾌하게 말할수 있다. 《승자만이 모든것을 가진다.》는 악의 론리에 대한 불만과 1%를 위해 존재하는 제도에 대한 분노의 폭발이라고 말이다.

인민적인 시책의 근간인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 의거하여!》라는 구호가 모든 활동에 구현되고있는것으로 하여 공화국은 시간이 갈수록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는 황금민능의 세계와 더 극명한 차이를 이루게 될것이다.

공화국정부가 가꾼 정신적풍요로 움속에 심신을 정화시키는 맛도 이를 들며 없는데 공화국의 목표—사회주의부귀영화를 상상해보는 맛은 더욱 달다.



훌륭히 완공된 은하과학자거리의 일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야 한다

현시기 조선반도에서는 공화국의 주동적인 조처들과 성의있는 노력에 의하여 긴장과 대결국면이 완화되고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는 방향에서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마련되어 가고있다.

잡정중단되었던 개성공업지구가 16일부터 정상가동에 들어가게 되고 민족분리의 비극적상징인 홀어린 가족, 친척상봉도 곧 이루어지게 된다.

북남사이에서 이룩된 오늘의 성과를 살려서 온 겨레가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적극 추동해나가자면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야 한다.

북남관계는 나라들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피를 나눈 동족사이의 관계, 우리 민족끼리의 관계이다.

우리 민족은 수천년을 내려오면서 하나의 혈통을 이어받고 같은 말을 하며 한강토에서 살아온 하나의 민족이다. 이러한 우리 민족의 단일성은 반만년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겨레가 창조한 물질문화적재부마다에 그대로 맥맥히 살아숨쉬고있다.

모든 조선사람들은 북에서 살건

남에서 살건 해외에서 살건 다같이 조선민족의 피와 땀을 지닌 하나의 민족이며 민족공동의 리익과 공동된 민족적심리와 감정으로 땀수없이 련결되어있다. 그 어떤 힘도 유구한 역사를 통하여 형성발전된 단일한 조선민족을 영원히 둘로 갈라놓을수 없으며 우리 민족과 우리의 민족성을 말살할수 없다.

외세에 의하여 강요된 민족분리의 비극을 통일하고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실현하고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온 민족이 단결하여 투쟁하는것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조국통일의 리정표인 북남공동선언들도 우리 민족끼리 민족적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의 근본리념으로 내세웠다.

6.15공동선언의 발표를 계기로 북과 남사이에서 다방면적인 대화와 접촉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우리 민족끼리는 전민족적인 리념으로 되어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촉진하고 겨레의 자주통일열기를 고조시켰다.

반세기이상 지속되어온 불신과 대결의 북남관계를 화해와 단합에로

전환시킨 6.15통일시대는 우리 민족끼리야말로 조국통일운동의 생명선이며 북남관계를 발전시키고 자주통일과 평화변영을 앞당기는 기치라는 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우리 민족끼리에 겨레가 바라는 자주도 있고 평화도 있으며 통일도 있다.

온 겨레는 외세의 침략과 간섭책동이 횡포해지면 질수록 우리 민족끼리의 가치를 더 높이 들어야 하며 그 리념에 모든것을 복종시켜야 한다. 자주에 살기를 원하고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가 우리 민족끼리리념을 최우선적인 지위에 놓고 그것을 적극 실현해 나가야 하며 그를 반대하거나 거세하려는 온갖 시도를 단호히 배격하여야 한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국통일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는데서 중요한것은 외세가 아니라 제 민족을 중시하고 확고한 민족공조로 외세의 반동일책동에 대해해나가는것이다.

지난 시기 6.15통일시대와 더불어

활력있게 전진하던 북남관계가 과국을 맞은것은 리명박보수(정권)이 동족보다 외세를 더 중시하고 그와의 반공화국대결(공조)에 혈안이 된데 중요한 원인의 하나가 있다.

온 겨레는 민족공조를 확고히 실현하며 민족공조의 힘으로 안락의 반동일책동세력의 반영화, 반동일책정책동을 단호히 분쇄해야 한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높은 자주의식을 가지고 민족의 대단합을 실현하여 반동일책력에 대한 통일력량의 압도적인 힘의 우세를 보장하고 통일운동의 승리적전진을 가져와야 한다.

그 누구도 우리 겨레의 가슴마다에 깊이 뿌리내린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거세말살할수 없으며 우리 민족끼리의 거세찬 통일호를 막을수도, 되돌릴수도 없다.

전체 조선민족은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밑에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삼천리강두우에 융성번영하는 통일강국을 기어이 일떠세우고야말것이다.

최광혁

통일조국의 새 역사를 수놓아가자

리철준

찬란한 문화와 전통을 이어온 반만년력사국이 새기를 이어오며 분별된 나라로 남아있기에 더더욱 가슴아프구나 통탄할 분별의 이 비극

겨레는 바라지 않는다 6.15의 노래가 울리던 그 땅에 전쟁의 폭음이 울리고 분별의 아픔 함께 씻어가던 우리 민족이 대결과 전쟁속에 잠기는것을

21세기문명의 상상봉으로 손잡고 나가야 할 우리 민족이 합치면 으뜸가는 부흥강국을 이 땅에 일떠세울 우리 민족이 갈라져 사는 이 수치 이 아픔

일떠서라 겨레여 용이진 마음을 풀고 진정어린 가슴을 맞대고 6.15공동선언을 떠받들었던 우리 아인가

가슴에 파고들수록 사무치게 안겨온다 백두산과 제주도, 개성과 서울에서 북남이 따로없이 단일민족의 정을 나누던 환희의 6.15 그 날들아

그 손과 손으로 머뭇쉴던 개성공업지구에 재가동의 동음 높이 울리자 갈라졌던 혈육들 상봉의 기쁨이 저 금강산 봉우리마다에 봄꽃처럼 활짝 피어나게 하자

사랑한다 우리는 분계선을 넘어 평양에서 인생의 첫 고고성을 터친 남녘의 아기 그 꽃같은 웃음

그 힘과 힘으로 전쟁의 근원을 들어내치고 영원한 평화의 뿌리를 내리자 6.15의 기운이 약동하는 강산에 우리 민족끼리의 대화원을 가꾸어가자

사랑한다 우리는 서로 잡고 끌어주며 금강산탐승길우에 날리던 북과 남 우리 겨레 화해와 단합의 그 웃음소리

얼마나 평화로우랴 대결과 전쟁의 불구름이 없는 그 하늘 그 땅은 얼마나 가슴벅차랴 통일의 환희로 흘러갈 날과 날들은

그 나날 우리 심장으로 느끼지 않았던가 평화의 푸른 하늘 푸른 대지는 6.15에 있음을 진정한 민족의 통일도 6.15를 꽃피우는 길에 있음을

오, 피를 나눈 겨레여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겨레여 6.15의 한뜻으로 뭉쳐진 힘으로 민족분리의 역사를 끝장내자 유구한 반만년민족사우에 통일조국의 새 역사를 수놓아가자!

백두에서 제주도 끝까지

백두산천지에서 제주도 끝까지 새 기발 높이여 삼천만은 나셨다

산천도 노래하라 이날의 감격을 조선은 빛나는 인민의 나라다

아 자유조선 인민공화국 해와 별 빛나라 조국의 앞길에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5돐이 되는 지난 9월 9일 아침 조국의 맑은 하늘에 울려 퍼진 《인민공화국선포의 노래》의 한구절이다.

백두산천지에서 제주도 끝까지! 그렇다. 삼천리강토는 조종의 산 백두산에서 제주도까지 한지맥으로 이어져 있다.

이 하나의 강토에서 5천년의 유구한 세월 하나의 피를 흘리고 하나의 언어를 쓰며 하나의 문화를 창조해온 우

리 민족이 외세에 의하여 둘로 갈라진지도 어언 68년 세월이 흘렀다.

공화국은 창건후 오늘까지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조국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다하여왔다.

그 과정에 1972년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7.4공동성명이 발표되어 온 민족에게 커다란 기쁨을 안겨주었으며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과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의 발표로 통일조국의 면모와 그 실현방도가 뚜렷이 밝혀지게 되었다.

2000년 6월 평양에서 분렬사상 처음으로 북남수뇌상봉이 마련되고 우리 민족끼리를 기본정신으로 하는 6.15북남공동선언이 채택된

것은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사에 특기할 사변으로 된다.

공동선언발표후 6.15자주통일시대가 펼쳐졌음으로써 북과 남은 화해하고 단합할수 있다는것과 통일은 먼 앞날의 일이 아니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나갈 때 반드시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세계앞에 힘있게 과시하였다.

북과 남을 오가며 진행던 여러 통일행사들에서는 한피줄을 이은 혈육의 뜨거운 정을 다스린듯 확인하였으며 이 나날 온 겨레는 통일에 대한 크나큰 신심과 락관을 받아안게 되었다.

하나의 마음으로 살기를 일구일심 원하기에, 외세의 지배와 예속을 원하지 않기에 7천만 온 겨레는 그 어떤 시련과 난관이 있을 가로막아도 통일조국의 그날을 위해 힘차게 떨쳐나서고있다.

국창건 65돐을 경축하는 성대한 로농적위군 열병식과 평양시군중시위가 진행되던 날 김일성광장의 건물벽면에는 《조국통일》이라는 글씨가 큼직하게 내리드러워져있었다.

나라의 통일을 바라는 3천만의 한결같은 념원을 담아 《인민공화국선포의 노래》가 울려 퍼진 그날처럼 북과 남의 7천만이 힘을 합쳐나간다면 통일조국의 새 아침은 반드시 밝아올것이다.

본사기자 리경순

개성공업지구 북남공동위원회 제2차회의 진행

개성공업지구 북남공동위원회 제2차회의가 10일과 11일 개성공업지구에서 진행되었다.

회의에서 북과 남은 1차 공동위원회와 분과위원회 등에서 협의된 문제들을 토의하고 해당한 합의서들

을 채택하였다. 개성공업지구 북남공동위원회 제2차회의에서는 9월 16일부터 공업지구

기업들이 시운전을 거쳐 재가동에 들어가기로 하였다.

본사기자

《진보진영전체를 압살하려는 불순한 기도》

최근 남조선의 정보원이 《내란음모죄》를 내뿜고 통합진보당성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색과 압수, 구속에 나서고있다.

이에 대해 남조선의 각계층은 정보원이 광란적인 《종북마녀사냥》을 벌이고 있다고 하면서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통합진보당을 비롯한 야당들과 언론들은 이번 사건이 정보원의 정치개입행위의 《정당성》을 부각시켜 현재 남조선정국의 주요 의제로 되고있는 정보원폐지 및 개혁주장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술수라고 단죄하고있다.

인터넷신문 《프레시안》은 《(국정원)은 왜 하필 이 시점에 공개수사로 전환했을까. 답은 명확해보인다. 9월 정기(국회)에서는 (국정원) 개혁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었다. 핵심은 (국정원)의 수사권제지 등이었다. 만약 리석기의 원 등에 대한 수사를 통해 (국정원)이 내란죄를 립증해내면 이 논의에 대한 여론의 지지는 약해질수밖에 없다. 게다가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초불여론에 대한 보수층의 반발성을 강화시킬수 있다.》고 밝혔다.

사건을 (국정원) 개혁이 야기가 나오는 시점에 리드민 것이 여러 의심을 들게 한다.》며 《(국정원)이 협의림정에 실패하면 위기모멘트를 위한 공안몰이였다는 책임을 면키 어려울것》이라고 규탄하였다.

한 야당대표는 《부정선거의 실체가 드러남에 따라 초유의 위기에 몰린 청와대와 해체직전의 (국정원)이 (유신)시대의 용공조작국을 21세기에 벌린다.》며 《(국정원)의 범죄에 대한 진실이 드러나고 현 (대통령)이 책임지라는 (초불의) 저해지자 초불시위를 잠재우려는 공안탄압》이라고 자신의 립장을 밝혔다.

남조선 언론들은 이번 《내란음모사건》에는 통합진보당을 《내란음모세력》, 《종북세력》으로 몰아 고립말살하고 나아가서 진보진영전체를 분렬약화시키려는 정보원의 불순한 기도도 깔려있다고 분석하고있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정당해산을 들먹이며 진보세력을 말살하려 했던 집권세력의 (정권)유지전

략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고 하면서 《이것은 진보당에 대한 탄압에 머무른 일이 아니다. 지난 《대선》에서 야권을 지지하는 국민 모두를 (종북)으로 몰았듯이 모든 민주세력을 내란범죄자로 지목하고 압살해 제거하려는것》이라고 단죄하고있다.

앞으로 이 사건을 둘러싼 남조선 각계층의 진실규명투쟁은 더욱 고조될것으로 예견되고있다.

본사기자



통합진보당에 대한 내란음모수사는 절절한 모략극이라고 규탄하는 남조선인민들

사건조작책동분쇄와 정보원해체투쟁에 나설것을 호소

남조선의 민주쟁쟁화통일주권련대가 당국의 모략적인 내란음모사건조작책동을 분쇄하고 정보원해체투쟁에 떨쳐나설때 대한 격문을 발표하였다.

격문은 정보원의 내란음모사건조작책동으로 하여 《유신》독재 망령이 되살아나고 보수세력이 진보세력추이에 열을 올리고있다고 규탄하였다.

내란음모사건은 초불투쟁

에 맞서기 위한 전형적인 조작사건, 정보원이 지배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독재세력이 주도적으로 공모한 상투적인 정치날조극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를 분쇄하지 못한다면 통합진보당에 대한 탄압이 결국 초불투쟁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으로 이어지게 될것이며 불법, 무법이 판을 치는 제2의 《유신》시대가 막을 올리게 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본사기자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정보원의 사건조작책동을 단호히 분쇄하고 정보원해체의 초불을 더 높이 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격문은 모든 진보세력, 각계층 민중이 총동원하여 내란음모사건조작책동을 분쇄하고 정보원을 해체하여 《유신》독재와 공포정치의 부활을 막고 국민주권, 평화통일의 시대로 나아가자고 호소하였다.

본사기자

인생길을 에돌아

나는 나쁜 놈들의 폐일에 빠져 조국을 배반하고 남조선에 가서 2년나마 살다가 다시 공화국의 품에 안긴 사람이다.

생각해보면 철이 없어 잘못 내짚은 한발자국때문에 인생길을 고달롭게 방황하며 몸도 마음도 어지러워지지 않으면 안되었다.

하지만 나는 진정한 삶의 길을 너무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나는 1991년 3월 함경북도 무산군 남산로동자에서 태어났다. 태어날 당시 집에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오빠 이렇게 네 사람이 있었다. 다른 집들처럼 평범하면서 단란한 가정이었다.

하지만 내 생장하는 과정에 나에게는 뜻밖의 변화가 일어났다. 갑자기 사랑하는 어머니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나는 예상외의 일로 논까지 다쳐 앓을 잘 보지 못하게 된것이다.

어머니가 없는 가정환경과

우리가 그렇게 하자 한달 후 다른 사람 2명이 우리를 국경도시인 콘명까지 데리고갔다. 그곳에서 다시 차와 배를 갈아타면서 메콩강을 건너 라오스국경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라오스사람 2명이 대기하고있었는데 그들은 따라 자동차를 타고 다시 타이의 어느 한 국경도시로 갔다.

그들은 손전화로 남조선에 있는 사람과 련계를 가지고는 타이경찰서에 의식적으로 찾아가 잡히라고 하는 것이었다.

이런 간계에 속아넘어간 우리는 타이경찰에 잡혀 방콕에 있는 수용소로 끌려가게 되었다.

그후 거기에서 2개월정도 있다가 비행기를 타고 인천비행장에 도착하였다.

그때가 2010년 10월이었다. 온갖 고생을 다해가며 지어는 수용소에 들어가까지 하면서 찾아가 이 땅은 과연 나를 어떻게 맞아줄까?

남조선사람으로 보이는 그 사람은 전화로 우리의 신분 관계 등 여러가지를 물고나서 남조선에 도착하면 자기에게 남조선돈으로 300만원 을 바친다는 《계약서》를 쓰라고 했다.

황금정 (다음호에 계속)

해외동포들의 정보원규탄시위 나날이 확대

력히 추구하였다. 뉴욕시 맨하탄 코리아타운에서는 8월 30일 저녁 4차 범뉴욕동포시위가 큰 규모로 진행되었다. 시위 참가자들은 현 남조선 《정부》가 《국정원대선개입사건》으로 곤경에 빠지게 되자 내란음모사건을 또다시 조작하여 통합진보당을 없애버리기 위한 탄압책동에 광분하고있다고 하면서 《국정원은 해체하고 박근혜는 퇴진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공안정국 조성의 장본인이며 악질3인방중의 하나인 정보원장 남재준을 즉각 해임할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캐나다의 토론토, 도이칠란드의 베를린, 프랑스의 리옹, 노르망디, 오스트랄리아의 시드니를 비롯한 세계 각 지역의 동포들 조지 워싱턴을 적극 벌

렸다. 카나다의 토론토, 도이칠란드의 베를린, 프랑스의 리옹, 노르망디, 오스트랄리아의 시드니를 비롯한 세계 각 지역의 동포들 조지 워싱턴을 적극 벌

렸다. 카나다의 토론토, 도이칠란드의 베를린, 프랑스의 리옹, 노르망디, 오스트랄리아의 시드니를 비롯한 세계 각 지역의 동포들 조지 워싱턴을 적극 벌

특히 《카나다한인정보네트워크회망 21》, 《오스트랄리아민주연합》을 비롯한 대표적

시위를 립일 벌리고있다. 이에 대해 현지언론들도 《박근혜대선무효초불이 지구촌을 달군다.》, 《박근혜(정부)가 국제적망신을 피할수 없게 되었다.》 등으로 크게 보도하고있다.

본사기자



미국 로스앤젤레스지역 각계층 동포들이 공동으로 벌린 초불시위



6.15공동선언실천 미국위원회 뉴욕지역성원들의 시위투쟁

성황을 이룬 제11차 대항소상 전국민족씨름경기

전국의 씨름전문가들과 애호가들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평양에서 제11차 대항소상 전국민족씨름경기가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풍치수려한 룡라도에 자리잡은 씨름경기장은 날이 더욱 활기있게 벌어지고 있는 대항소상 전국민족씨름경기를 보려고 각지에서 온 수많은 근로자들로 경기시작전부터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씨름애호가인 평양시 모란봉구역 전우동에 사는 리연진(50살)은 《대항소상 전국민족씨름경기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며칠전부터 기다려왔다. 크고작은 체육경기 대회들에서 진행되는 씨름경기를 빠짐없이 보아오지만 규모나 수준에 있어서 역시 대항소상 전국민족씨름경기

가 제일이다.》고 하면서 출전하는 선수들까지 흥분감을 감추지 못하였다.

그런가하면 씨름 잘하는 고장으로 소문난 평안북도 룡천군에서 왔다는 최창배(65살)로인은 옛날부터 우리 인민은 모내기과 김매기, 가을걷이때의 일침에 발머리나 강가의 모래판, 잔디밭에서 씨름판을 벌려준 하였는데 이 《이름도 《각저》, 《각력》, 《각회》 등으로 불리워왔다는것, 고구려벽화무덤에 두 씨름꾼이 서로 부둥켜안고 굽은 팔뚝과 다리에 힘을 모으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승부를 겨루는 그림이 그려져있는데 이것은 세

나라시기에 벌써 씨름이 널리 진행되었다는것을 보여준다며 손해를 써가며 사람들에게 조선씨름의 유래를 풀기도 하였다.

관중들의 열기던 응원속에 드디어 제11차 대항소상 전국민족씨름경기가 시작되었다.

경기는 몸무게급별(개인전, 단체전)씨름경기과 비교씨름경기로 진행되었다. 경기에 참가한 선수들은 안걸이, 무릎걸이, 밧걸이, 발목치기, 돌림배지기, 뒤집기 등 평시에 다져온 재치있고 다양한 기술수법을 적용하여 통쾌한 장면들을 펼쳐보였다.

올해 대항소의 주인은 누가 될 것인가?

드디어 비교씨름경기가 시작되자 8명의 선수들이 출전하여 대항소를 놓고 서로 승부를 다투었다. 경기장을 둘러싼 관람자들도 손에 땀을 쥐고 경기를 주시하였다.

시종 치열하게 진행된 비

는 김항봉(평안북도), 55kg급경기에서는 장인명(평양시), 60kg급경기에서는 리성국(황해북도), 70kg급경기에서는 김경일(평안북도), 80kg급경기에서는 계창범(평안북도)선수들이 1등을 쟁취하였다.

단체전에서는 평양시가 1등, 황해남도가 2등, 평안북도가 3등을 하였다.

여러날에 걸쳐 진행된 씨름경기에서 관중들의 제일 큰 관심을 끈것은 대항소의 주인을 결정하는 비교씨름경기였다.

올해 대항소의 주인은 누가 될 것인가?

드디어 비교씨름경기가 시작되자 8명의 선수들이 출전하여 대항소를 놓고 서로 승부를 다투었다. 경기장을 둘러싼 관람자들도 손에 땀을 쥐고 경기를 주시하였다.

시종 치열하게 진행된 비

교씨름경기에서는 황해남도의 손광철 선수가 맞다드는 대항들을 모두 물리치고 1등의 영예를 지니었다.

2등은 강원도의 김금철 선수가, 3등은 함경북도의 유성수 선수가 하였다.

시상 및 폐막모임에서는 비교씨름경기에서 1등을 한 황해남도의 손광철 선수에게 1t이나 되는 대항소와 금수방울, 상장이 수여되었다.

우수한 성과를 거둔 단체들과 선수들이 상장과 메달을 받았다. 또한 이번 경기에서 높은 기술과 투지를 발휘한 여러명의 선수들에게 기술상과 투지상이 수여되었다.

제11차 대항소상 전국민족씨름경기는 《마시령속도》를 창조하며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힘찬 투쟁을 벌여나고 있는 온 나라에 열결과 향안이 차넘치게 하고 민족의 자랑인 씨름기술을 더욱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올력 8월 보름날은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민속명절인 추석이다.

추석은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이 절명절과 함께 년중에 가장 크게 쇠여온 민속명절의 하나이다. 추석이란 오곡백과 무르익는 풍요한 가을철의 달밤은 보름날을 명절로 즐김에서 생겨난 이름으로서 가을제

옛 기록들에 의하면 추석은 이미 세나라시기초에 《가배날》이라고 하면서 큰 명절로 쇠여왔는데 이날 조상의 무덤을 찾아보는 풍습이 있었다고 한다. 또한 활쏘기를 비롯한 여러가지 경기를 진행하여 우수한 사람들에 말과 철을 상으로 주었다는 기록도 있다. 그리고 김매기가 끝난 올력 7월 16일부터 한달동안 녀성들이 편을 갈라 길쌈경기를 벌려오다가 8월 15일에 총화를

하고 진 편에서 이긴 편에 음식을 차려 사레한 다음 춤추고 노래부르며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고 한다.

추석명절의 첫 의례는 조상의 무덤을 찾아보는 것이었는데 지난날 이것을 성묘, 산소보기, 뉘보기라고 하였다. 추석명절을 맞으며 조상들의 무덤을 먼저 찾아 풀

도 배주고 그해의 햇곡식으로 만든 음식으로 제사를 지낸것은 언제나 웃사람을 존경하고 례일이 밝으며 의리가 깊은 우리 겨레의 고상한 미풍양속의 반영이었다.

추석날의 민속음식으로는 햇곡식으로 만든 송편과 함께 노치, 발단지, 찰쌀로 만든 청주를 비롯한 여러가지 주류 등이 있었다.

지방마다 특색을 살려 여러가지 모양과 크기로 만든 송편은 추석날음식에서 빠져

서는 안되는것으로서 추석 음식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음식이었던 찰쌀가루와 길쭉가루 등을 리용하여 만든 노치는 평양지방의 특식으로 유명하였다.

추석날에는 여러가지 민속놀이도 하였는데 남자들의 씨름과 녀인들의 그네뛰기가 첫 자리를 차지하였다. 추석날 저녁에는 달구경 또한 이례를 띠었다. 높은 산에 오르거나 집마당에 명석을 펴고앉아 유난히도 밝은 은백색의 둥근달을 바라보며 제나름대로 조용히 마음속속 원을 위우고 소박한 꿈이 담긴 시와 노래로 즐기던 달구경풍습에는 다정다감하고 정서가 깊은 우리 민족의 내면세계가 잘 반영되어있다. 민속명절 추석은 오늘 공화국에서 시대의 요구와 인민들의 고상한 정신적포모에 맞게 더욱 아름답게 이어지고있다.

본사기자



발해시기의 무덤 때 새로 발굴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에서

최근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가 함경북도 회령시 중심동일대에서 발해시기의 무덤 때를 새로 발굴하였다. 너비 약 300m, 길이 약 600m로 이루어진 중심무덤 때는 발해시기의 돌칸흙무덤들이 기본으로 되어있으며 그 밖에 돌곽무덤과 돌관무덤들도 드문드문 섞여있다.

무덤안길과 무덤칸으로 이루어진 돌칸흙무덤들의 평면생김새는 타원형 또는 장방형으로 되어있다.

무덤발굴과정에서 당시 발해사람들이 사용하였던 청동고리, 구슬 그밖에 합, 바리, 원통형단지, 접시, 가락바퀴

와 같은 질그릇들을 포함한 수습여점의 가치있는 유물들이 발견되었다.

무덤 때를 발굴한 차달만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고적발굴대 대장의 말에 의하면 무덤칸이 무덤구역을 설정하고 돌로 축조한 중심무덤 때는 무덤의 축조상태와 이곳에서 나온 유물들로 미루어 보아 발해시기 귀족들의 무덤임을 알 수 있다고 한다.

송신무덤 때는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의 력사와 문화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의의가 가진다.

본사기자



무덤 때에서 나온 유물들

노들강변이라는 말은 버들파에 속하는 크고작은 나무들이 자라는 버들방천의 강기슭을 의미한다. 노들이란 말은 옛날에 낫버들의 준말로 통하였다. 낫버들이란 수양버드나무와 같은 큰 버드나무가 아니라 가지를 많이 치는 키버들(고리버들)을 가리켜 부른 말이다. 이 버들가지들은 키와 바구미를 비롯한 가정생활도구들을 만든데 좋은 재료였으므로 사람들이 낮으로 베어다가 쓰곤 하였는데 낮으로 자른 키낫은버들가지 밑에는 다시 새로운 가지가 솟아나고 하였다. 이것을 가리켜 민간에서는 낮으로 베 버들가지라는 뜻에서 낫버들이라고 불려왔다.

해방전 일제에 대한 분노와 울분의 감정을 은유적으로 노래한 《노들강변》이 창작된데는 이런 사연이 깃들어있다.

어느날 친구의 병문안을 갔다오던 작곡가 문호일이 로양진나무에 이르니 살길을 찾아 고향을 떠나가는 한 류량인의 가족이 배

신민요 《노들강변》에 깃든 이야기

를 기다리고있었다. 울망줄만한 아이들과 함께 파리의 보질을 지고 서있는 망주의 얼굴에는 수심과 절망이 무겁게 드리워져있었다. 그들의 눈물겨운 정상은 문호일의 눈부리를 아프게 찔렀다. 눈길을 돌려 강변을 보느라니 휘둥거린 수양버드나무 가지들이 봄바람에 휘적이며 《배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싶은 류다른 정서를

내려 오선지와 연필을 꺼내든 작곡가의 머리속에는 운치나는 선물가락이 무르익고 있었다.

노들강변에 쌓이고 쌓인 한 많은 사연을 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슬픔과 비애에만 젖고있지 않은 작곡가의 사라 시도 잘 짓고 그림도 잘 그렸으며 글씨 쓰는 솜씨는 더욱 뛰어나 《시서화3절》로 불려왔다.

김정희는 조선서예력사상 재능있는 대가의 한사람으로서 《추사체》라는 독특한 글씨체를 만들었다.

김정희의 뛰어난 필치는 천성이 아니라 근면한 노력에 의하여 이루어진것이라고 볼수 있다. 그가 일생에 10개의 버루를 먹갈아 구멍을 뚫었으며 북축이 닳아 없어진것이 1 000자루나 된다고 한것은 그가 명필로 되기까지 얼마나 피라는 노력을 기울였는가를 잘 알수 있게 한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창조된 《추사체》는 점잖으면서도 강기를 풍기는 필력으로 자유분방하게 그려진 예술성이 풍부한 의젓한 글씨들장변》은. 이렇게되어 세상에 나왔다.

본사기자

김정희와 《추사체》

조선봉건왕조후반기 우리나라 서예계에서 특출한 자라나 과격적이라고 할 정도로 예술성의 높은 경지를 개척하였다. 밀물같이 조용하기도 하고 바다와 같이 깊고 넓기도 하며 폭포가 쏟아지는 것과 같이 세차기도 하고 방금 종이 날아오듯 호랑이가 뛰어나오는듯 힘과 조기가 휘둘러오는 《추사체》만이 가지고 있는 필체라고 할수 있다.

조선미술박물관에 그가 행서로 쓴 《다리목에서 손님을 바래노라니 눈이 웃에 가득히 담겼구나》, 《초가삼간도 비바람을 피할수 없구나》, 《자손을 가르치려면 마땅히 누워침없는 몇몇한 도리로 가르치라》 등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그의 뛰어난 서예적재능을 전해주고있다. 그의 서예 작품들은 국내의 여러 박물관에 전시되어있으며 묘향산에 그다 《상인암》 현판 글씨가 있다.

이렇듯 김정희는 우리 민족의 슬기롭고 용맹한 기성과 감정정서를 필법에 구현함으로써 조선봉건왕조후반기 서예발전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였다.

본사기자

고기보다 더 좋은 콩

일반적으로 단백질이 많은 식료품으로는 고기, 닭알, 견제품, 콩류 등을 꼽는다. 그중에서도 단백질이 제일 많은것은 콩류이다.

콩에는 단백질이 거의 40%정도 들어있는데 이것은 오리고기에 비해 2.4배, 소고기에 비해 2배, 닭고기나 돼지고기에 비해 1.8배나 더 들어있는 셈이다.

건강의 기본원천은 질 좋은 단백질이다. 그것은 사람의 몸이 세포의 결합체이고 세포는 주로 단백질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콩 단백질에 대한 영양실험에 의하면 콩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보다 더 훌륭한 단백질이라는것이 확정되었다.

생활과 수명의 관계를 조사한데 의하면 콩고기보다 콩이 장수에 좋다는것이 알려졌다.

이러한 사실들은 콩이 야말로 《밭의 고기》이며 어떤 의미에서는 고기보다 건강에 훨씬 더 좋은 식료품이라는것을 알수 있게 한다.

본사기자

단편 소설 봄의 협주곡 (4)

글 류준, 그림 김윤일

올려다리는 가슴을 누르며 처녀를 바라보던 원림은 문득 대학후배가 생각났다. 신애에게 뒤에 서있는 변을 소개했다.

《인사하고 나와 함께 있는...》

그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신애가 인사는커녕 변옹에게 조소에 찬 시선을 보냈던것이다. 더욱 놀라운것은 매혹적인 녀인들의 추과와 고래에 당당하고 의젓한 기품을 감춥처럼 떨치던 후배가 신애앞에서 어쩔줄을 몰라하는 모습이었다.

원림은 머리동질해서 두사람을 번갈아보았다.

후배가 다급히 토론했다.

《신배님, 사실 우린 대학동창입니다. 한때 제가 신애씨를 따라다니다 그만 지나쳐서 뺐을...》

원림은 새삼스러운 눈길로 그를 보았다. 사고와 몸가짐이 안팎으로 정돈되었다

고 여겼던 변옹에게 그런 무분별한 정열이 있었다는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주위에선 이름할수 없는 아랫한 분위기가 맴돌았다. 뒤늦게야 자기할바를 깨달은 원림은 현현하게 웃었다.

《허허, 그런 일이 있었구만. 한창시절이니 무슨 일인들 없었겠소.》

자기로서는 별로 신동치 않은 말이지만 그런데로 그들 사이에 드르니 불쾌한 감정을 해소하는데 다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심정이였다.

아닐새라 그 말이 끝나기 바쁘게 변옹이가 두손을 앞에 모아뉘었다.

《신애씨, 짐집으로 사귀합니다.》

신애는 코웃음을 치며 머리를 옆으로 돌려버렸다. 다른사람과 다른 모습인 해본적 없고 간혹 그 비슷한 일이 있더라도 제편에서 먼저 물

러서군 하던 신애로서는 실로 과격적인 행동이었다.

보다못해 처녀에게 한마디 건넸다.

《속인 머리는 배지 않는 법이요.》

그래도 처녀는 오지부둥이었다. 마치도 대학시절에 있었다는 그 일은 그들 사이에 일생을 두고 넘을수 없을만큼 높은 장벽을 구축해놓은 듯싶었다.

신애가 그렇게 나오니 용서를 빌었던 변옹은 말할것도 없고 원림이도 난처했다.

원림은 허거르게 웃으며 변옹에게 일었다.

《늦었는데 먼저 가보게.》

변옹은 제격 신애결에서 물러났다. 연방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며 초총히 멀어져가는 그의 모습은 출근시간을 지키려고 애쓰는 성실한 사람의 자세였다.

후배는 가벼웠지만 그들은 무거운 분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한채 한동안 서있었다.

깊은 생각에 잠겨 아래입술을 잘근잘근 깨물던 신애가 불쑥 이런 이야기를 꺼냈다.

《엘핏 보면 카멜레온은 평범한 나무가지처럼 보인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곤충들이 깜빡 속곤 하지요.》

《?》

신애가 어째서 그런 말을 하는지 알수 없었다.

《신애, 그건 무슨...》

원림의 손전화기에서 호출 신호가 야무지게 울렸다. 변옹의 연락이였다.

《파장님이 부서모임을 하겠다고 급히 오시랍니다.》

몹시 아쉬웠다. 신애와 오랜만에 만났는데 몇마디 나누지 못하고 헤어지다니...

《신애, 저녁에 만나게요.》

처녀는 고개를 까딱했다.

척 좋아했다.

독막에 걸렸던 신애가 자리를 털고 일어난 후 두번인가 세번인가 함께 왔던 이 초잡집에서 그가 맛있게 먹

는 모습을 보는 제미가 팬찮도 싫었다. 그리고 번잡한 도심에서는 쉽지 않다고할만치 아늑한 이 곳이 젊은 남녀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기에는 그저그만이라는것이 신애를 이곳으로 청한 다른 하나의 이유였다.

그가 나타나려면 더 기다려야 했다.

가끔 여담기군 하는 출입문을 덤뎠히 바라보던 원림은 한숨을 크게 내그었다. 신애와 한 약속만 아니라면

다. 별로 입맛이 당기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에게 케를 기칠기봐 수지를 불리는척하는 그를 보느라면 불쑥 애처로운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도 식성좋은 자신이 려치 않게 생각되는 것이였다. 그런 신애였지만 새콤하면서도 감칠맛이 나는 초밥만은 무

려야 했다.

가끔 여담기군 하는 출입문을 덤뎠히 바라보던 원림은 한숨을 크게 내그었다. 신애와 한 약속만 아니라면

오래동안 책을 읽거나 글을 쓰던 눈동자가 아파나고 눈앞이 흐려진다.

이때 극화

눈이 피로하면

환을 축적시켜주기때문에 피로가 쉽게 풀린다.

본사기자

유모아

몸싸기에 좋은 운동

의사가 비대증환자에게 권고하였다.

《비만증을 고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운동을 하는것입니다. 땀수록 운동하십

면 피로가 인차 풀린다. 뜨거운 물에 적서낸 세수수건을 눈에 대고 있도록 눈의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기때문에 피로가 쉽게 풀린다.

본사기자

